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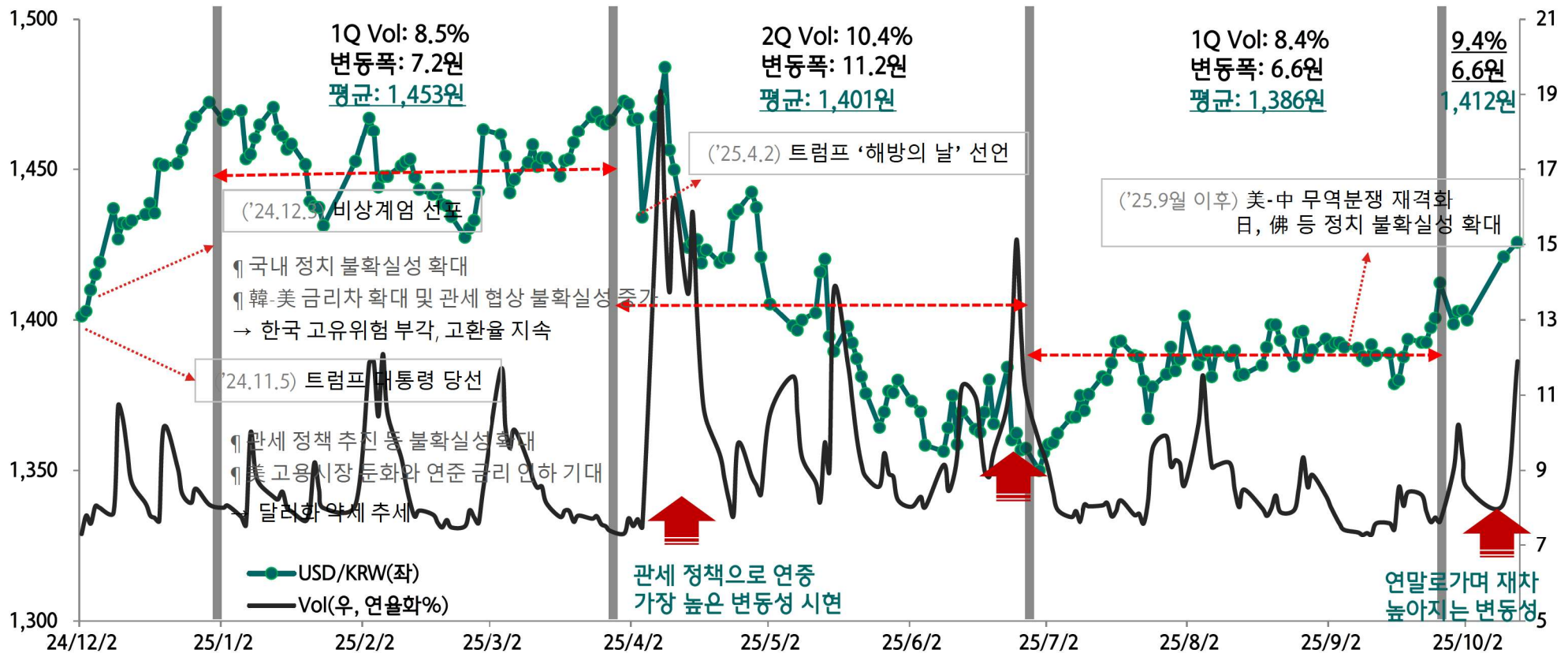


2026년 외환시장 전망 - KRW

2025. 11. 25

- **동향** : 국내 정치리스크의 원화 고유위험과 미 관세 정책으로 연고점 경신. 이후 국내 정치 불확실성 완화와 미 연준 금리인하로 1,400원 하회 후, 4분기 미-중 무역 갈등 격화에 변동성 재차 확대되며 1,400원대 재진입
- **환율변동성** : 9.1%(연율)의 높은 변동성 시현. 2분기 트럼프 관세 시점 크게 확대 후, 4분기 미-중 관세 격화에 재차 확대
- **특징** : 미 관세로 인한 달러 약세를 대내적 정치불안정성이 상쇄한 영국 시현. 해외주식투자 수요 유입과 국민연금의 매수세 속 대외 악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1,400원대 중반의 고환율 고착화되는 국면 나타냄

2025년 달러/원 환율 동향 및 주요 이슈



1Q
이슈

- 국내 정치리스크 등 고유 요인 확대
- 트럼프 관세 우려 지속 반영 등

2Q
이슈

- 미 관세 발효에도 달러 약세
- 국내 신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3Q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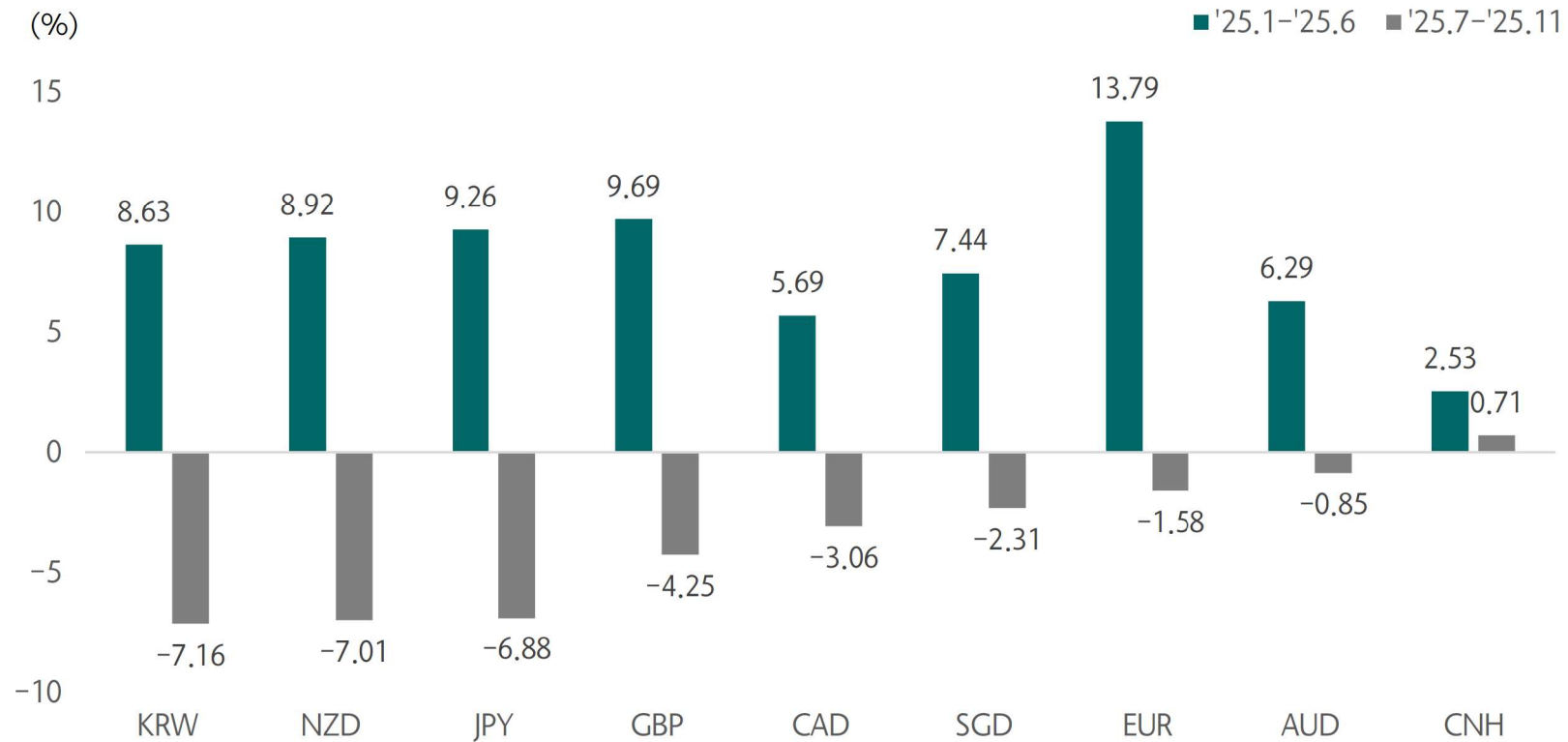
- 미 고용시장 둔화와 연준 인하 기대
- 연준내 매파성향, 한미 협상 불확실성

4Q
이슈

- 연준 신중한 금리인하 접근 전환
- AI 고점 인식에 따른 위험회피 확산 등

- '25년 하반기,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7.16% 절하되어 주요국 통화 중 약세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한-미 정상회담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되었음에도 외환수급 여건 악화 속에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짐
 -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달러 수요, 수출업체들의 달러 매도 지연 등으로 달러 매수 우위 수급 불균형 지속

주요 통화별 달러 대비 절상/절하율



자료: 인포맥스

• 상반기 통화시장 주요 특징 :

1) 관세 전쟁 격화 속 달러 약세, 2) 주요 통화 변동성 확대, 3) 신흥국 통화와 달러인덱스의 일부 시점 탈동조화 확대

• 4월 이후 관세 부과 이후 달러 가치 100선 하회에도 원화 환율 상승 추세 이어지며 탈동조화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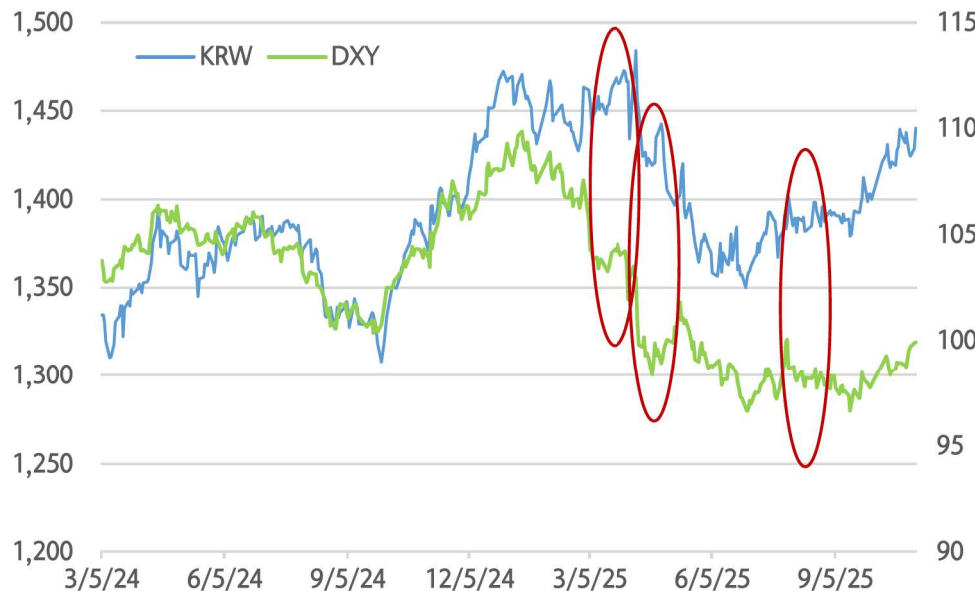
- 달러 가치 약세 배경 :

- 1) 절대적 요인 → 관세 정책 등 미국 내부적 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달러 가치에 영향
- 2) 상대적 요인 → 달러 자산 재평가 속 신뢰도 저하에 의한 가치 하락 우려에 DXY내 타 안전 통화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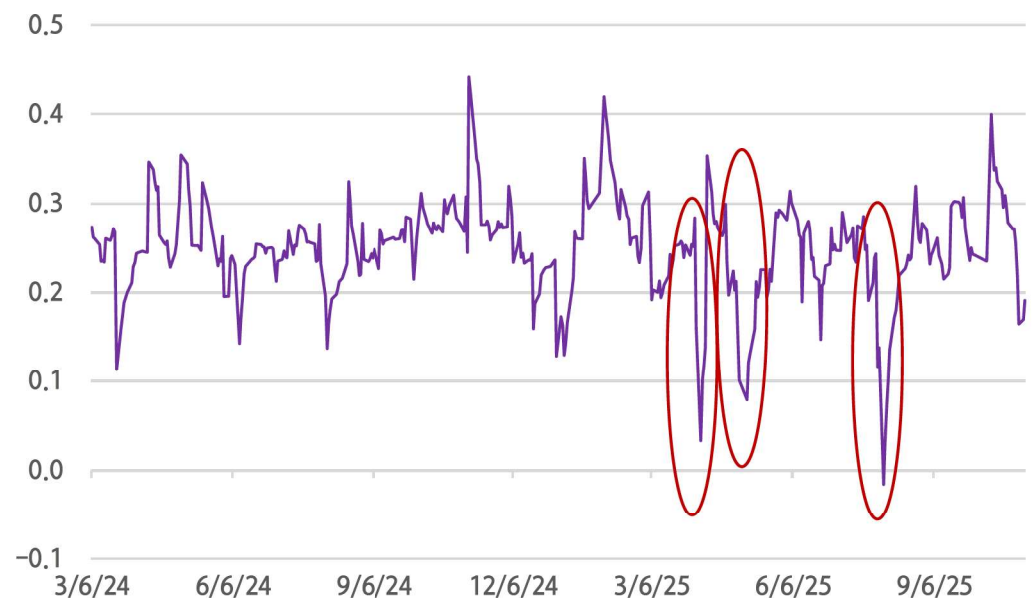
- 원화 가치 약세 배경 :

- 1)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 불신
- 2) 대미 관세 협상 등 미국 관세 부과 영향의 국내 수출에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
- 3) 하반기 들어 국내투자자, 기관의 해외투자 증가세 속 기업들의 달러 보유 니즈 확대 등 수급의 구조적 요인

원화 vs 달러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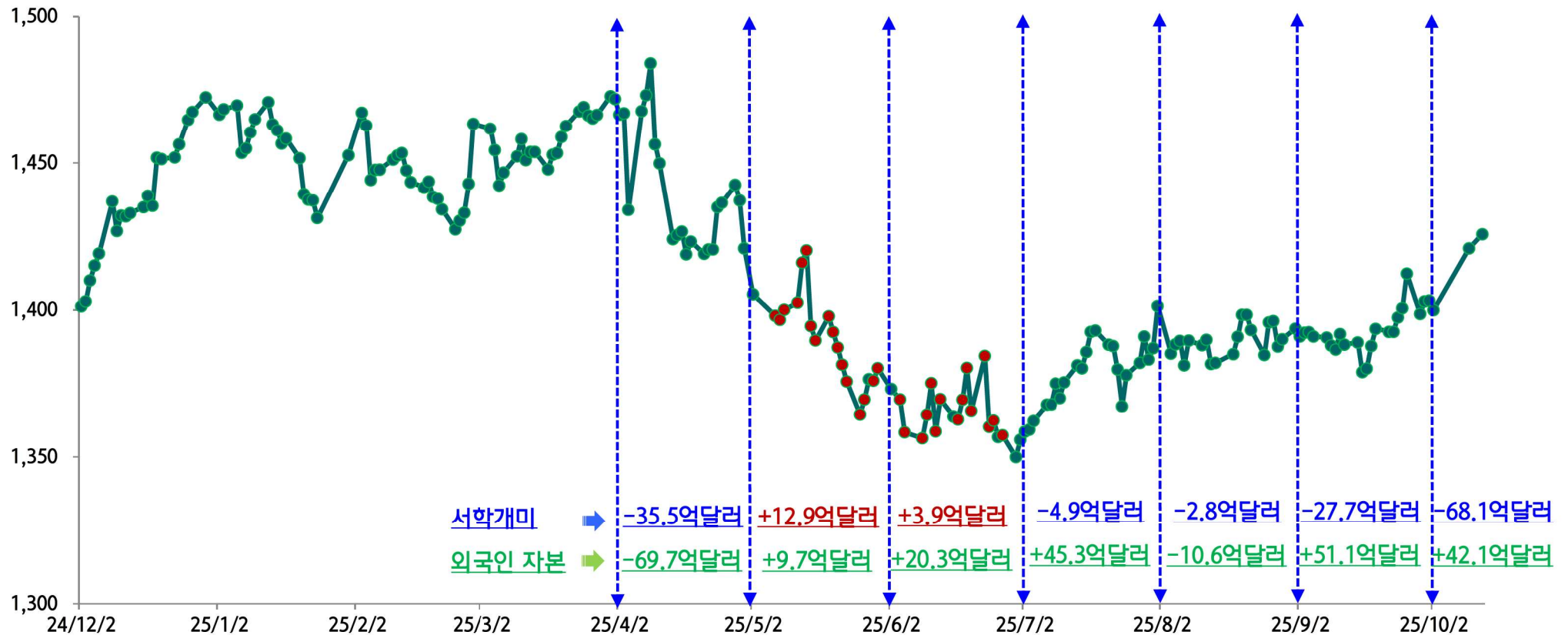


원화 vs 달러인덱스 조건부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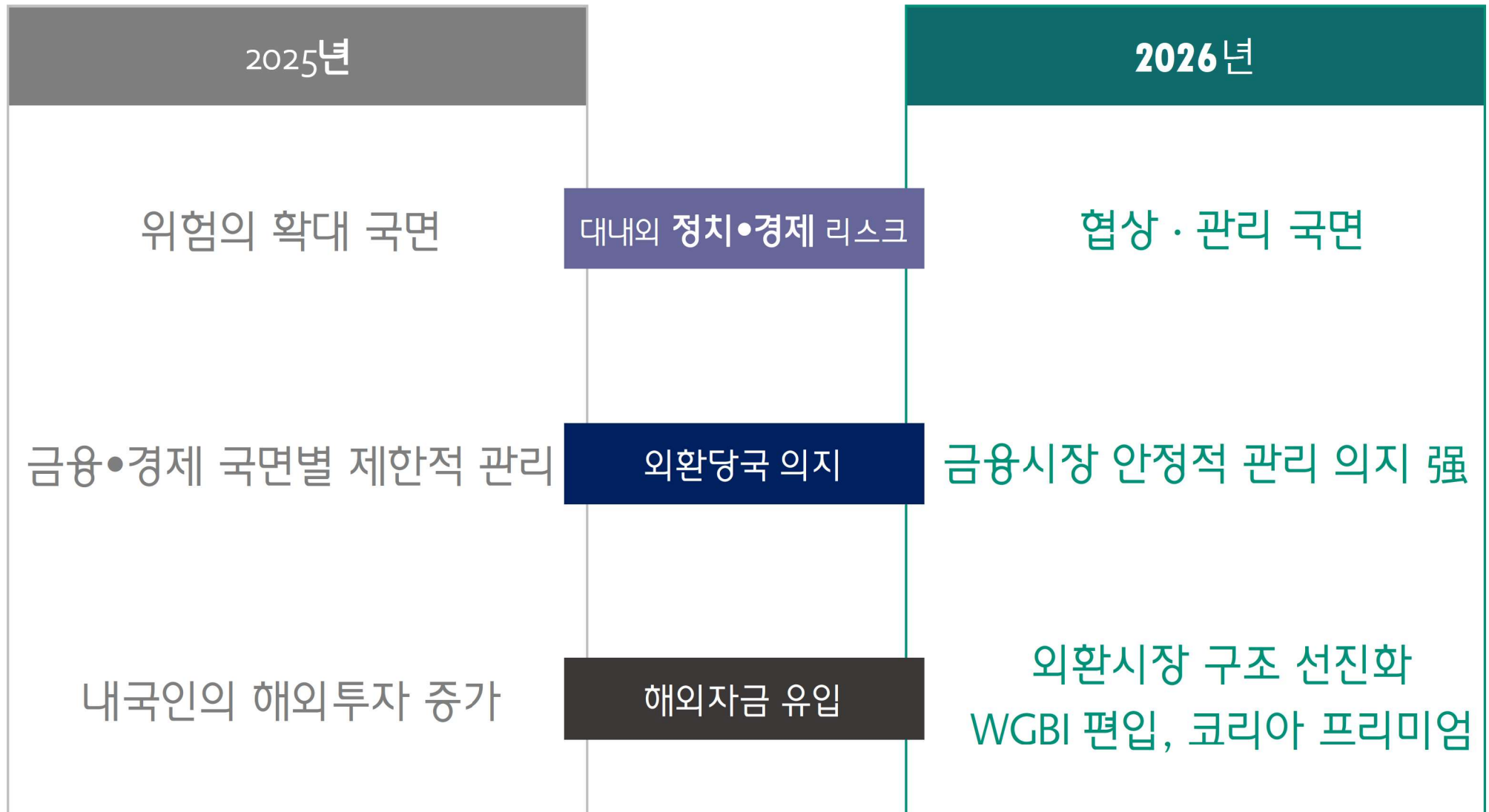
- '25년 서학 개미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46.5억달러인데 반해,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수 규모는 35.5억달러 수준
- '25년도 후반 AI 고평가 논란에도 해외증시 자금 유출 등을 고려 시, '26년 첨단산업 관련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지속하는 가운데 원화 환율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개인 해외주식 순매수 규모(억\$)와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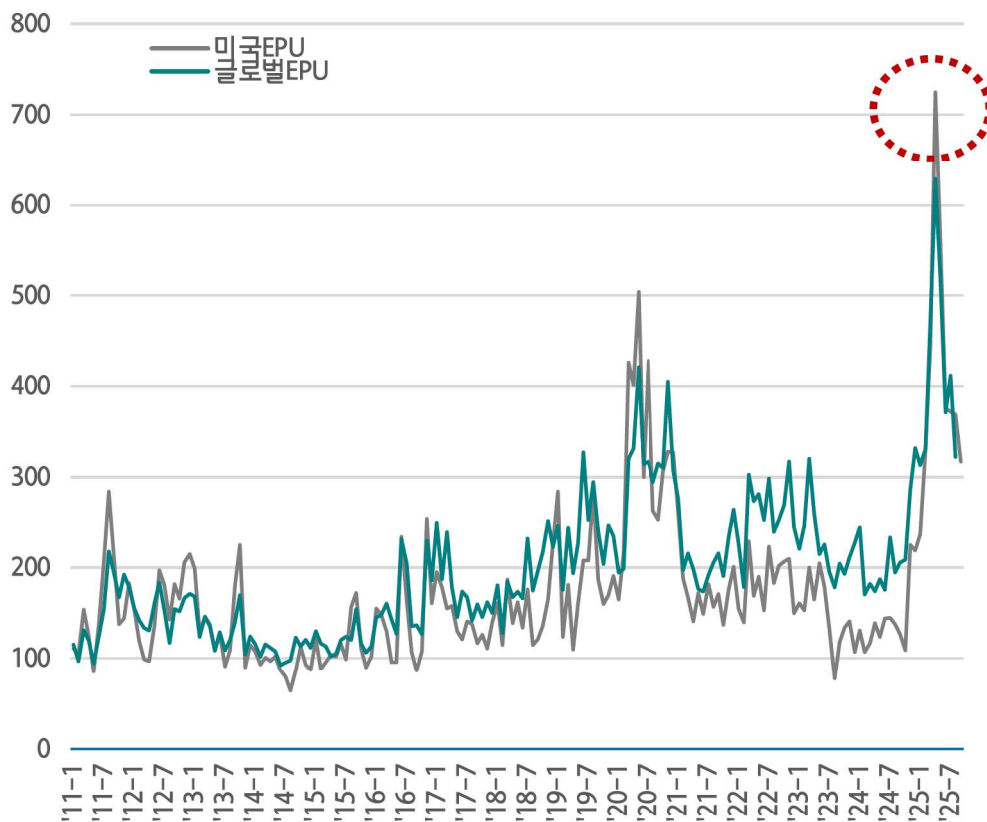
주: '25년 10월 기준

[2026년 환경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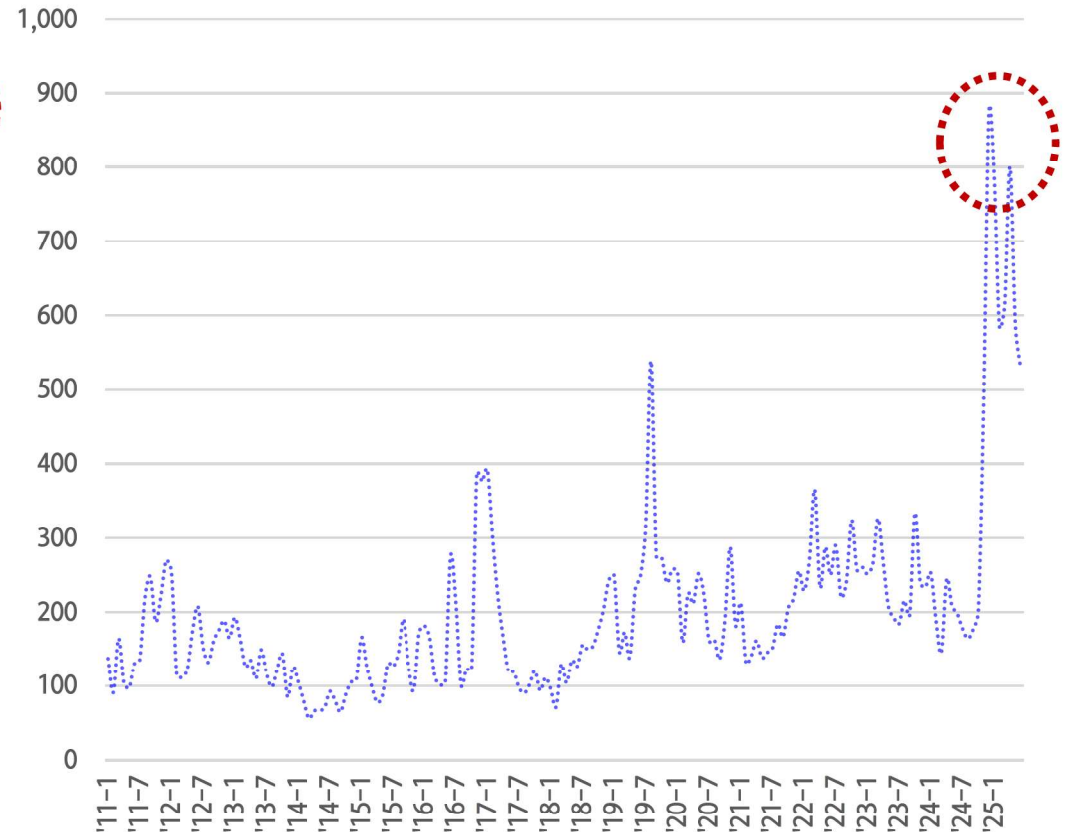
- 미 관세정책 이후 무역 갈등 격화 조짐에도 견조한 성장세 등으로 미국 정치경제 불확실성 정도 완화를 보임. 하지만 글로벌 무역 및 지정학적 이슈 등 산적한 요인 해소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 등이 재차 불확실성 높일 가능성 배제 못할 듯
- 국내적으로도 신정부 출범 이후, 민생과 금융시장 안정 중시 정책 속 불확실성 정도 낮아지는 추세이나, 미국과 대미 투자 협상 타결 이후 투자 진행 문제 및 건설 투자, 다소 미약한 내수 회복 여부 등으로 불확실성 국면 재차 확대될 수 있을 가능성 상존

미국 정치·경제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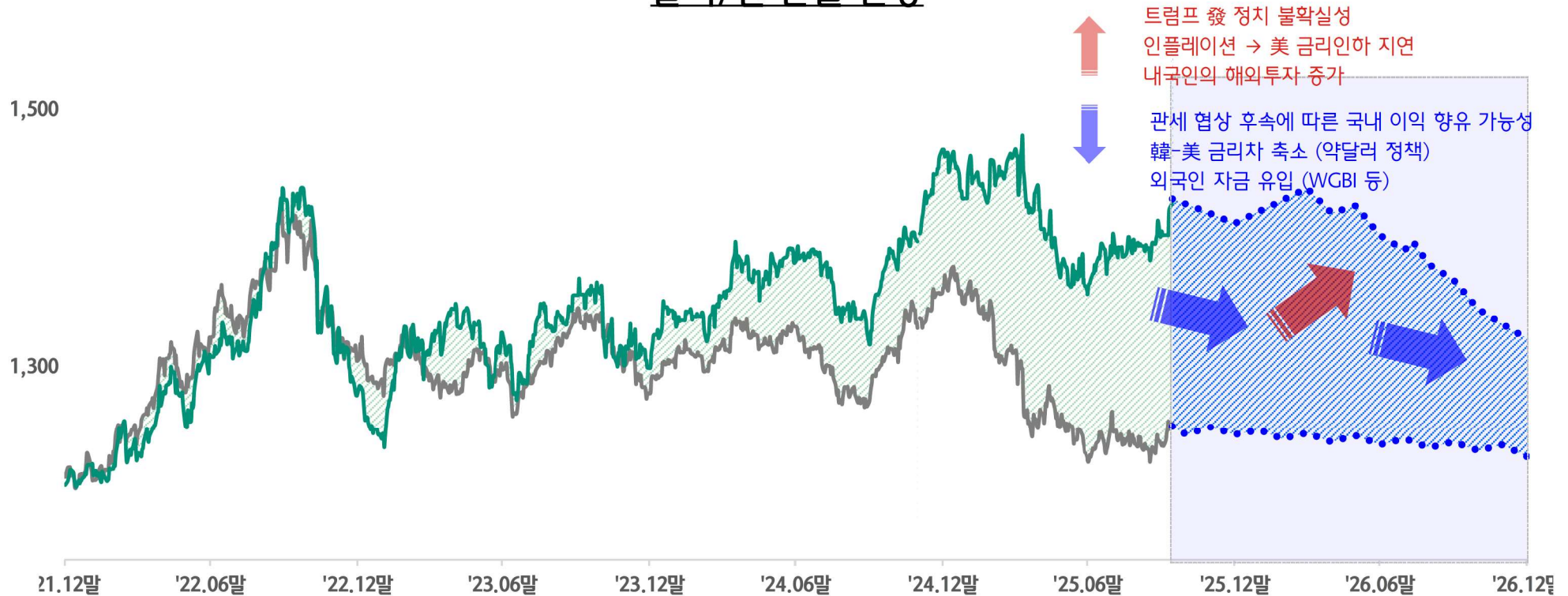
자료: EPU

원화(경제) 관련 정치·경제 부문 불확실성



자료: EPU

달러/원 환율 전망



'26년 외환 Watching Point

- 연준은 고용 하방 위험 대응 위해 추가 금리인하 나섰지만 물가 상황 고려, 속도조절 예상. 한은은 금리 인하 신중할 전망. 연준 경로 반영한 금리차 유지는 환율 상승 억제
- 美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 다소 높아진 가운데, 美 경제도 성장을 낮아지겠지만, 상대적 성장 우위 지속 예상되는 점은 달러 강세 지지 요인
- 美 관세 불확실성 하에서 한국의 對美투자 부담으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은 상존할 요인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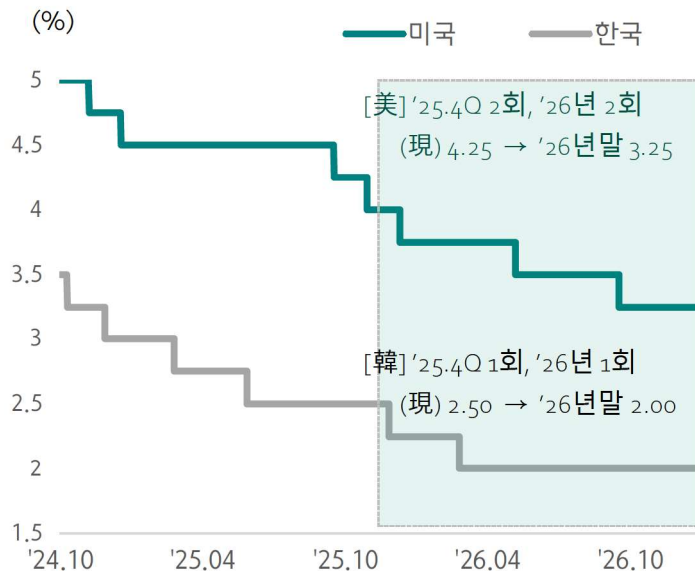
핵심 요인별 환율 방향성

- ['25.4Q] 대외 불확실성 하, 1,400원대 중반에서 점진적 하락 예상 ⇒ **셋다운 종료, 금리인하 시장 기대**
- ['26년] 1,400원 상향에서 **상저-중고-하저** 흐름 전망
연초 연준 금리인하 영향으로 하락 출발 후, 미 성장 우위 및 관세 리스크에 달러 강세 속 상승. 이후 완만한 국내 경기 회복세, WGBI 수급 등에 하반기 1,380원대까지 완만한 하락 예상

2026년 통화시장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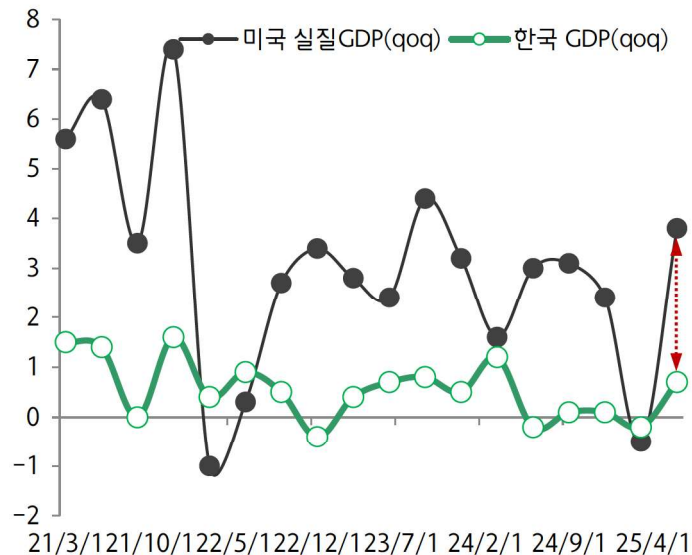
주요 이슈	예상 방향	'25.4분기	'26년
통화정책	(美) 관세 영향 디스인플레이 제한 속 신중한 인하 접근 (韓) 금융안정과 연준 경로 고려, '26년 1회 인하 예상	연준 동결 → 달러 ▲ 한은 동결 → 원화 ▲	한-미 금리차 제한적 유지 → 원화 가치 ▲
대내외 경제 여건	- 美, 주요국 대비 성장 우위 하, 주요국 등과 격차 유지 - 美 관세 영향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	견조한 미 경제 → 달러 ▲	미 성장 우위 → 달러 ▲
관세리스크	-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 미국의 주요국과 협상 타결은 위험 완화 요인이거나, 중국과 타결은 연내 여전히 쉽지 않은 위험 요인 - 관세 영향에 따른 수출실적은 품목별 차별화 예상	對미 투자 부담 → 달러 ▲ 통화스왑 x	품목별 수출 쏠림 → 원화 ▲ (반도체 중심 영향)

한-미 기준금리



자료 :인포맥스

한-미 성장률 격차



자료 :인포맥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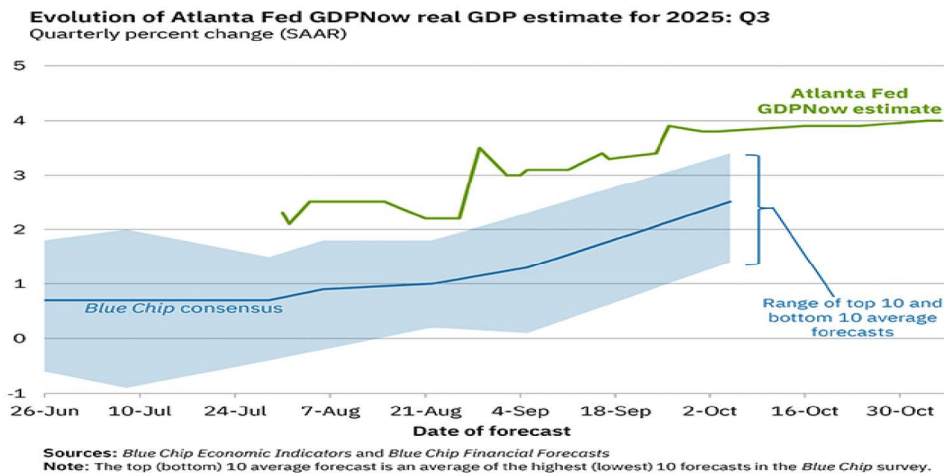
관세에 따른 국가별 통화 절상절하율

국가	관세율	통화가치변화
한국	15%	-3.4%
일본	15%	-5.15%
유로	15%	+1.98%
영국	10%	-1.29%
대만	20%	-2.75%
캐나다	35%	-2.23%
멕시코	25%	+4.60%

자료 :인포맥스, 주요기사 참조 (통화가치 : 6.1일 이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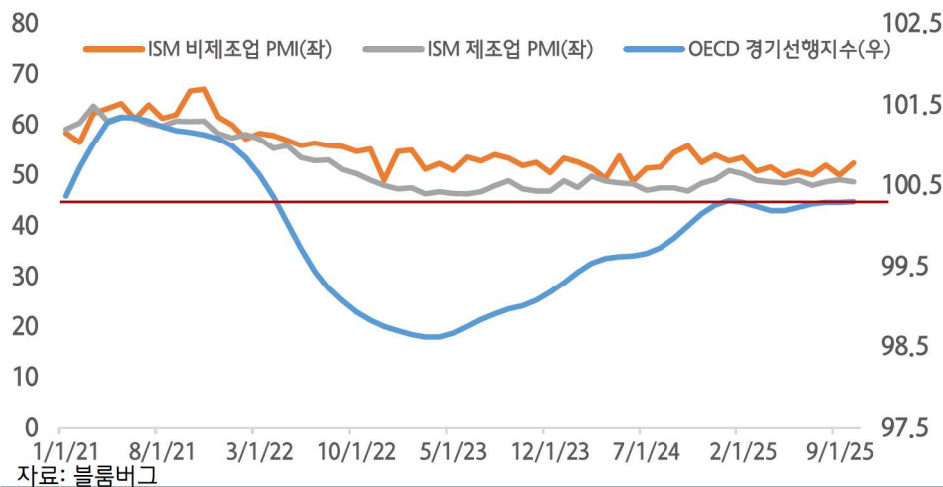
- 미국 경제의 성장률은 둔화는 있겠지만, Recession으로까지 진입하지는 않을 전망. 오히려 여타 주요국 대비 미국 성장률 우위 격차 유지가 예상
- 실물경제: 상단 4.0% 고금리에도 소비 호조 및 견조한 고용시장 흐름으로 성장세 유지 → 3분기 성장률 전망은 4%에 근접
- 노동시장: 관세 우려에 노동수요 감소, 이민자 정책 변화 등으로 공급도 감소하며 해고와 이직이 과거처럼 활발하지 않은 'LOW-HIRE, LOW-FIRE' 형태 진입
 - '25.8월 NonFarm 증가폭 +22,000으로 매우 저조, 실업률은 4.3%로 거의 변화 없음 → 노동 수요측과 공급측이 최근 들어 균형에 접근했다는 분석 제기
- 물가: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이나 다소 높은 수준 유지, 특히, 관세 영향 우려되는 가운데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생산자물가의 상향 등이 우려 요인
 - PCE: '25. 4월 2.5% → 5월 2.7% → 6월 2.8% → 7월 2.9% → 8월 2.9%

3분기 미국 경제에 대한 GDPNow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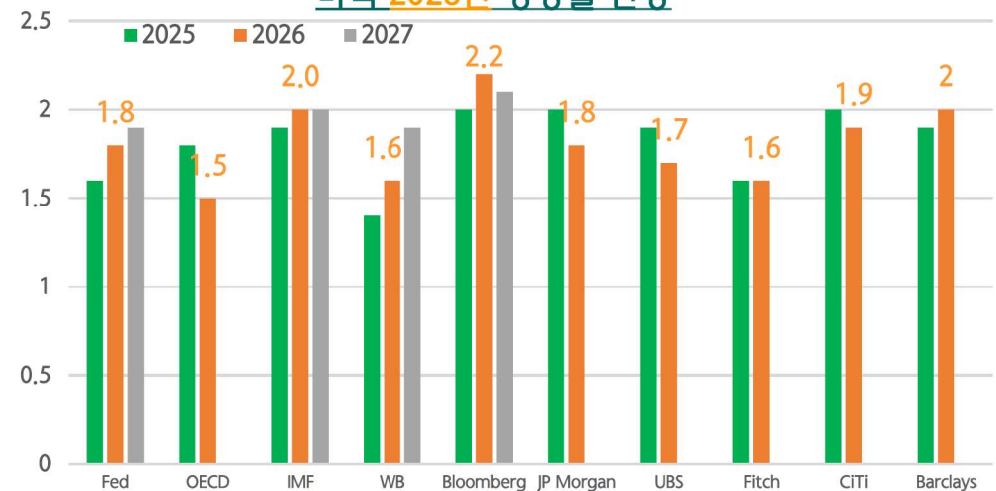


자료: 애들랜타연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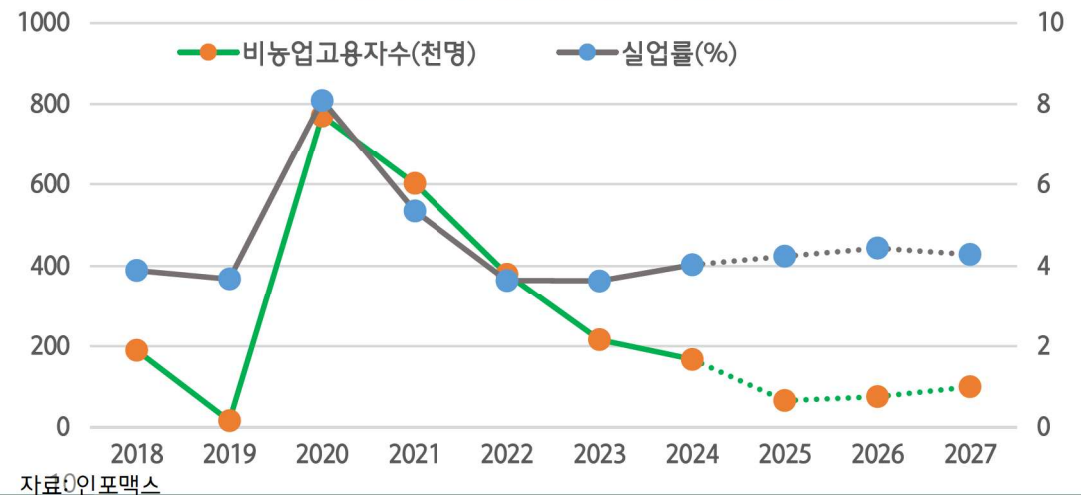
미국 경기지표 추이



미국 2026년 성장률 전망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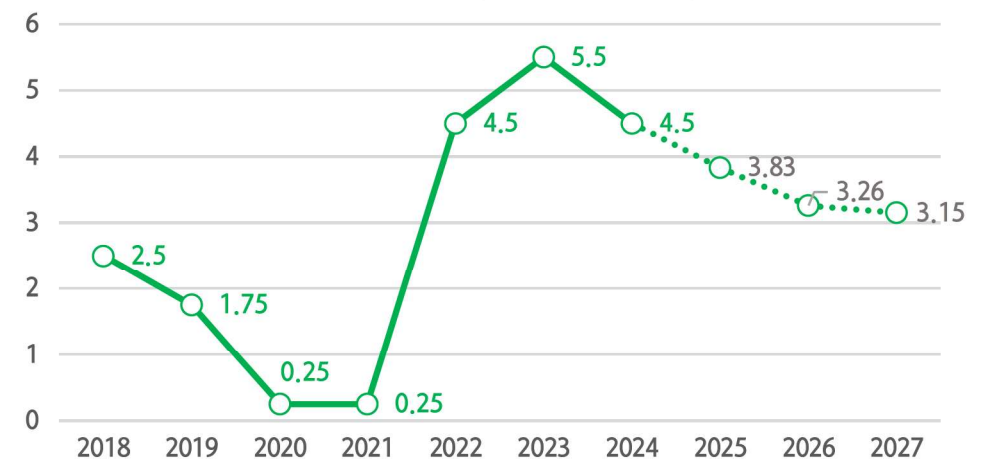
- '25년 7월 회의까지 동결 후, 9월과 10월 위험관리 차원 인하 단행(상단 4.0%)
- 현재 발표된 미 관세 정책의 실물경제와 디스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매우 불확실 → 노동시장과 경기 둔화에 대한 위험 상존
 - 보험성 차원 선제적 인하 및 추가 2회 인하 제시 후 추가 1회 인하했지만, 내년도 양상은 데이터에 의존, 신중하게 정책 조정해 나갈 가능성

연준 기준금리 경로 점도표(9월)

목표	2025	2026	2027	2028	장기
4.5					
4.375	1				
4.25					
4.125	6				
4					
3.875	2	2	2	2	1
3.75					1
3.625	9	6	2	2	1
3.5					1
3.375		2	2	2	2
3.25					1
3.125		4	7	5	2
3					4
2.875		3	3	4	1
2.75	1			1	2
2.625		2	2	3	3
2.5					
2.375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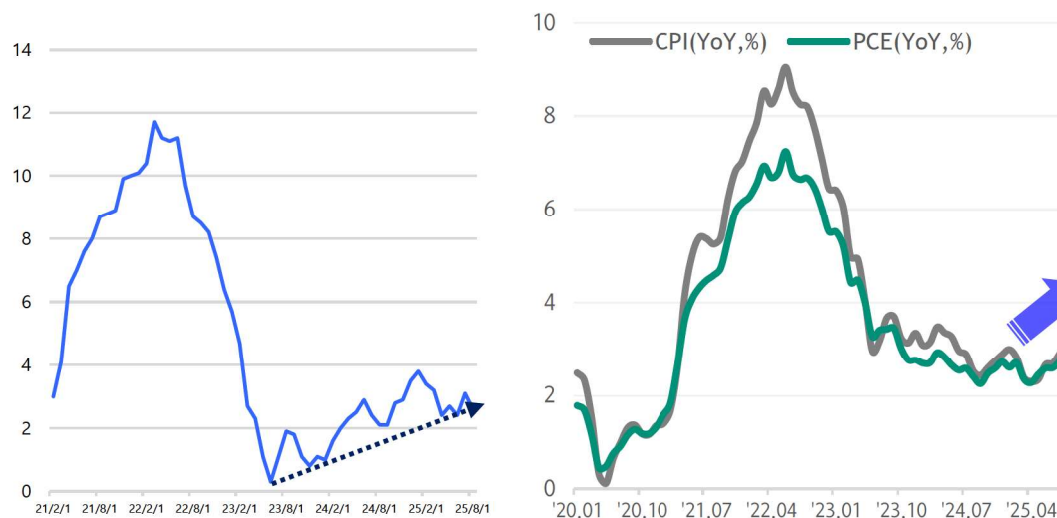
자료 : Fed, 블룸버그

연준 기준금리 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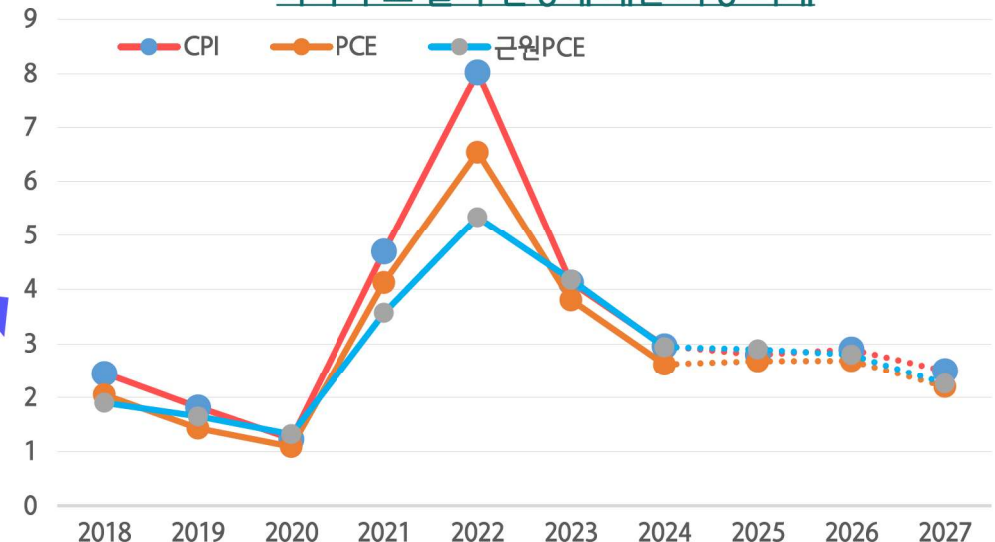
자료 : FRB

미국 PPI와 주요 물가지표 추이/예상



자료 : 인포맥스

미국 주요 물가 전망에 대한 시장 기대



- 미국 GDP성장률, 근원물가지표, 실업률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향후 평가는 직전과 동일하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우려를 표하는 위치

* FOMC 참여자들의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

- GDP 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 : 하방으로 가중(13 → 13)
- 근원 PCE에 대한 불확실성 : 상방으로 가중(16 → 16)
- 실업률에 대한 불확실성 : 상방으로 가중(15 →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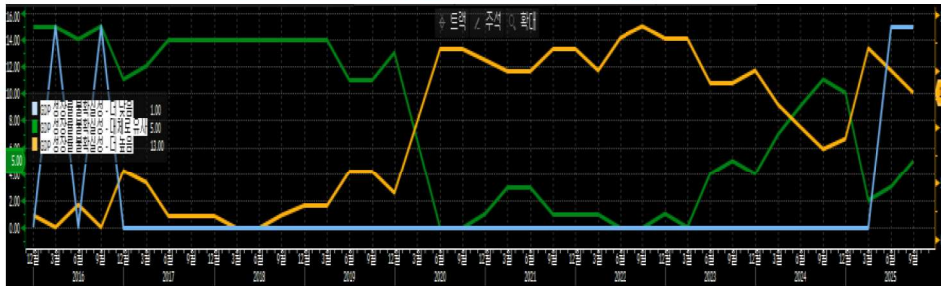
주: ()안은 각 부문에 대한 위험 평가를 내린 연준 위원의 수

* FOMC 참여자들의 경제 주요 부문에 대한 위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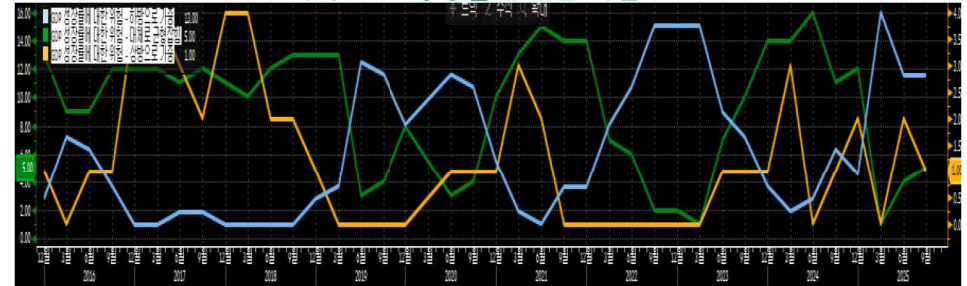
- GDP 성장률 위험 : 더 높음(13 → 13)
- 근원 PCE에 대한 위험 : 더 높음(12 → 12)
- 실업률에 대한 위험 : 더 높음(15 → 15)

주: ()안은 각 부문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를 내린 연준 위원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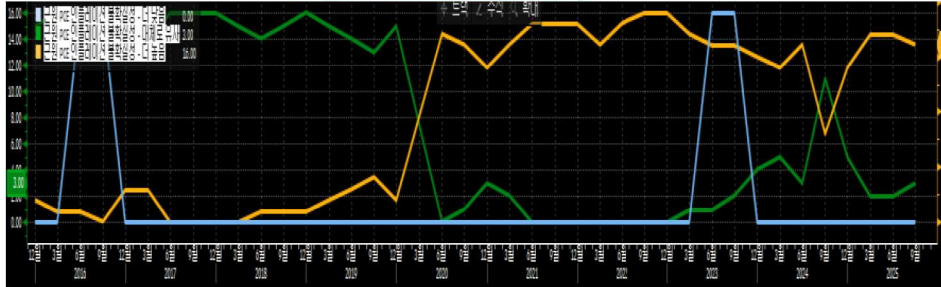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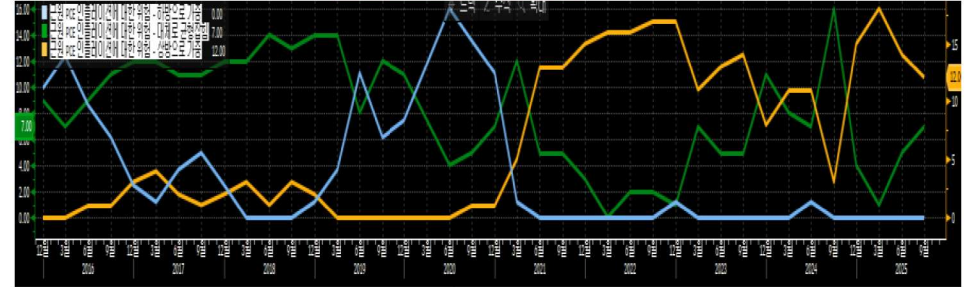
미국 GDP 성장률에 대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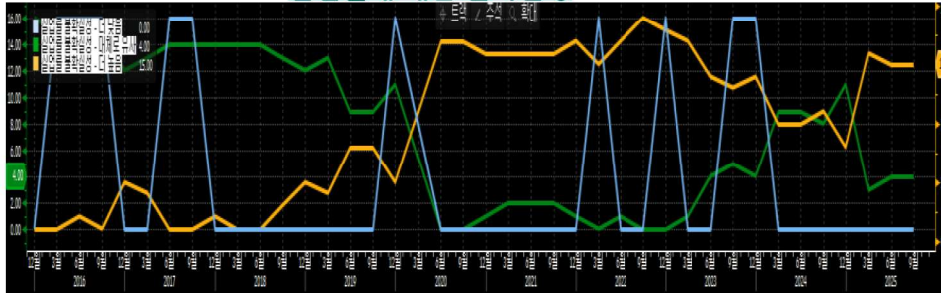
근원PCE에 대한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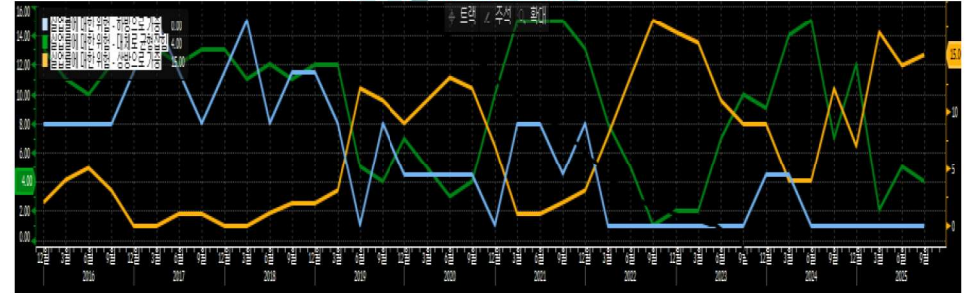
근원PCE에 대한 위험



실업률에 대한 불확실성



실업률에 대한 위험



자료: 블룸버그

- 연준은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는 판단 하에 이중 책무 간 균형을 고려하여 9월에 이어 10월 FOMC에서도 25bp 인하 결정
-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평가하며 연속된 금리인하 결정은 보험적 성격의 조치임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스탠스 견지
- 연내 금리 경로에 대한 연준 위원들 간 엇갈린 견해이나 아직까진 인하에 신중한 모드

제롬 파월



이사회(의장) / 9월 FOMC

최근 고용 하방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이중책무 관련 리스크는 균형에 근접했다고 평가. 이번 금리인하는 위험관리성 인하이며,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은 내년까지 누적될 것으로 예상

존 윌리엄스



연준위원(뉴욕)

연준 이중 목표인 고용 극대화과 물가 안정이 진전된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를 보다 중립적인 수준으로 옮기는 게 적절할 것으로 예상

베스 해맥



연준위원(클리블랜드)

높은 인플레이션에 계속 우려. 통화정책은 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함. 지난회의 통화정책은 긴축적이지 않음. 현재 완화되어야 할 명확한 이유가 보이지 않음

알베르토 무살렘



연준위원(세인트루이스)

사실상 완전고용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2%를 상회하고 있음. 노동시장 목표에 무게를 과도하게 두면 불필요한 정책 완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제프리 슈미드



연준위원(캔자스시티)

지난 수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넘어선 가운데 2%로 되돌리는 마지막 단계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 단기 금리를 낮출 경우 인플레이션에 대한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유의해야 함

미셸 보먼



이사회(부위원장)

올해 3차례 금리인하를 전망했으며, 최근 고용지표가 내 견해를 지지. 인플레이션 압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용 둔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회(이사)

노동시장이 악화되기 시작하면 빠르게 악화되기 때문에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려야 함. 시장은 관세 인플레이션을 걱정하지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스티븐 마이런



이사회(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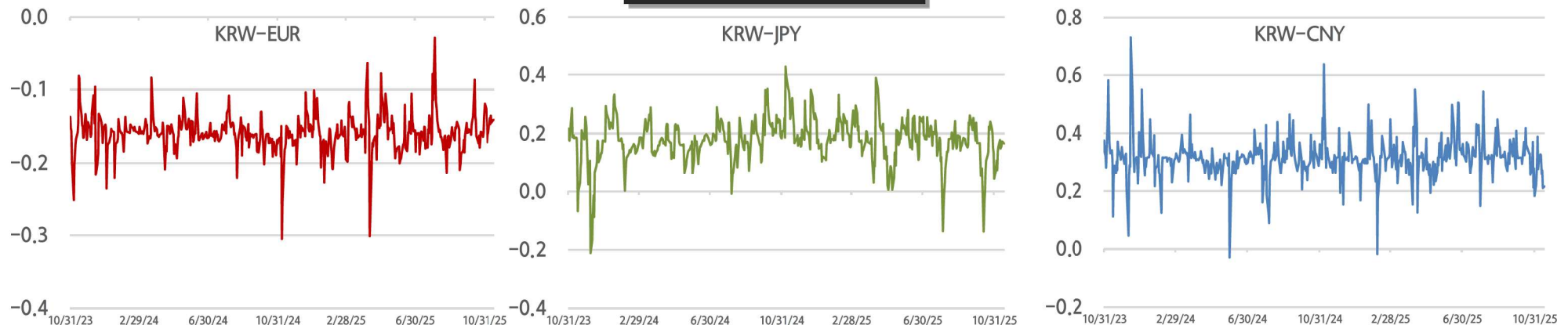
9월 FOMC 금리 결정에서 홀로 빅컷(50bp 인하)을 주장했으며, 새롭게 발표된 점도표에서 연내 125bp 금리인하를 전망한 것으로 추정

VS

- (유로존) ECB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가능성 거론되나 미약한 성장세, 유로화 강세로 인한 물가 부담 완화 등에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상존
- (일본) 새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기조 아래 BOJ 통화정책 정상화는 지연될 전망
- (중국) 미-중 무역 갈등 다소 완화되었으나, 불확실성 여전.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내수 부진 지속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 예상

	경제상황	통화정책	
유로존	- 미 관세 영향, 수출 감소 등 독일 3연속 역성장 위기 - 프랑스 정치적 불확실성 및 재정 불안,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약화 등 경기 하방 리스크 - '26년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1%대 초반 수준 전망	- 미국과의 무역협정 타결 등 성장 하방 위험 완화에 따른 ECB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 전망 - 유로화 강세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 등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와 정치적 리스크 등 경기 하방 리스크 고려한 추가 인하 가능성	유로화 약보합
일본	- 다카이치 내각의 대규모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 의지 - 성장 재원 조달 위한 국채 발행 가능성 등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 '26년 일본 GDP성장률 전망치 0.7% 예상	- 실질임금 연속 감소세 등 물가-임금 선순환 어려움에 따른 BOJ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 정부의 완화적 금융정책 기조와 제한적인 경기 회복력	엔화 약세
중국	-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중국정부의 추가 경기 부양책 등에 올해 성장률 5% 하회할 가능성 - 부동산 부진 심화와 내수 부진 등 경기 둔화 우려 지속 - '26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5% 달성 쉽지 않을 전망 - 미-중 무역 협상은 진전보다 빈번한 유예 속에 갈등 지속되는 관계 형성으로 변모할 듯	- 인민은행은 경제성장을 위해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긴장 관계 재차 고조될 가능성 상존한 점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	위안화 강보합

원화와 상관성 점검



• 지정학적 리스크의 세계 경제에 대한 부작용

- 현재 진행중인 전쟁 당사국들은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내재

* 중동전쟁 : 국제 유가 변동성에 영향

* 우크라이나 : 세계 식료품, 곡물 가격 변동성에 영향

* 러시아 :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변동성에 영향

• 종전 전제 조건 (전쟁학자 '클라우제비츠'): 적병력 섬멸, 적 수도 점령, 적국의 동맹을 끊음

지정학적 이슈 전개 국면 예상

• 중부유럽: 여론과 전쟁 지속 한계 속에 미국 종전 압박 거세졌음에도 전쟁 당사국 간 이해관계 상충에 따라 전쟁 지속 양상 이어질 전망

•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트럼프의 강력한 중재에 의해 휴전 성립. 하마스와의 일시 휴전 중에도 헤즈볼라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 지속 양상 등에 대해 향후 이란의 재차 개입 국면 배제 못할 상황에서 언제든지 확전의 불씨가 내재된 전개 배제할 수 없을 전망

중부유럽 전쟁 양상

5.10일 이후	러시아군, 히르키우 북부 공세 개시
'24년 상반기	러시아, 돈바스 남부 집중전 우크라, 러시아 인프라 시설 타격
'25년 1~5월	전선 전반에 점진적 러시아 압박과 국지적 우크라 반격 교차
5~9월	국경 후방지역과 점령지에 대한 드론/미사일 공격 일상화
9~현재	러시아군, 도네츠크 서부로 압력 강화
전장 패턴	'24년 이후 누적했던 점진적 진전 바탕으로 가을 전선 재편 시도

이란-이스라엘 전쟁 양상

'25년 3.23일	이스라엘, 헤즈볼라, 레바논 남부서 휴전 4개월만에 최대 교전
3.29일	이스라엘, 휴전 후 처음 베이루트 공격
4~5월	미, 이란 오만에서 1~4차 핵협상 및 로마에서 5차 핵협상
6.13일	이스라엘, 이란 전역 공습. 이란도 핵시설 피격 보복 공습
6.21일	미, 이란 포르도 등 핵시설 3곳 공습
6.23일	이란, 카타르 미군 기지 보복 공격. 트럼프 이란-이스라엘 휴전합의
11.11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 공습, 헤즈볼라 군사작전 강도 확대

지정학적 위험의 금융외환부문 함의

에너지 원자재	대규모 공세/장거리 타격 뉴스는 단기 유가, 곡물가격 변동성 확대
	- 25.6.13: 이스라엘-이란 공습 교환 직후 유가 +\$3 급등
	- 25.6.19: 공중전 격화에 유가 +3% 급등

- 리스크프리미엄 증가: 자본의 안전자산 선호 추구 경향 강화
- 원유, 가스 가격 추이: 중동 무력 충돌 증가는 공급 리스크 자극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가능성 확대에 영향
- 리스크 온/오프에 민감한 통화들에 대해 자본유출, 통화 약세 압력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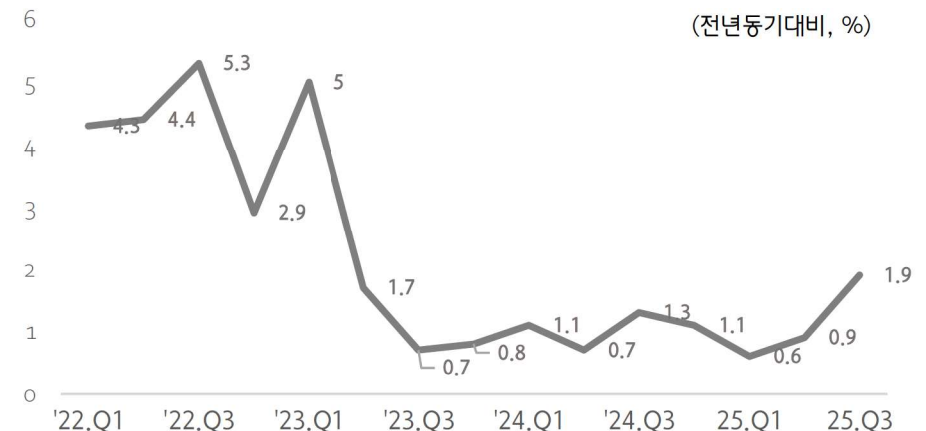
- 국내 경제는 수출 호조와 소비 증가 등에 '25.3분기 전기대비 1.2% 성장하면서 연간 1%대 성장을 달성 가능성 높아짐
 - 美 관세 리스크에도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 중심 수출 증가와 정부 부양책에 힘입은 소비심리 개선 등이 맞물리며 성장을 견인
 - 미 관세의 영향 피할 수 없겠으나, 예상보다 빠른 한-미 합의로 자동차 부문 등에서 주요국과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조정된 점이 긍정적
- '26년 한국 경제는 양호한 수출에도 약한 내수 회복세와 국내 투자 위축 등에 성장세는 제한적일 전망
 - 민간소비는 '23.2분기부터 1% 내외의 낮은 증가세 기록. 한은 금리인하와 정부 지원 효과로 최근 반등했으나 회복세 지속 여부는 불확실
 - 기업들의 대미투자 확대에 국내 투자 여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경기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

한국 GDP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한국 민간소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美 관세의 성장률 영향

	GDP 성장률		수출 증가율(%)
	25년	26년	
무역경로	-0.23	-0.34	-1.6
대미수출 감소	-0.18	-0.26	-1.2
여타국수출 감소	-0.05	-0.08	-0.4
미국시장 대체	+0.17	+0.24	+1.1
여타국시장 축소	-0.22	-0.32	-1.5

주: 관세부과 없었을 경우와 비교한 변화율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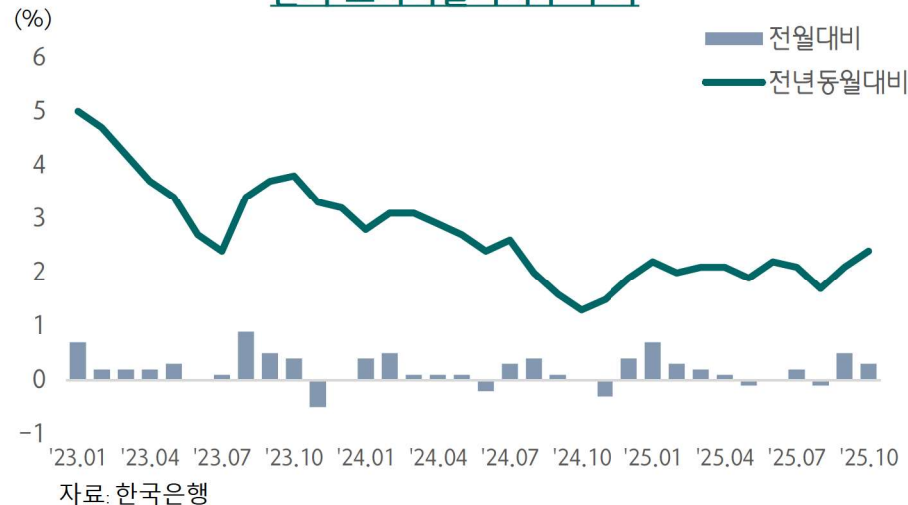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주요 기관 및 IB 별 '26년 한국 경제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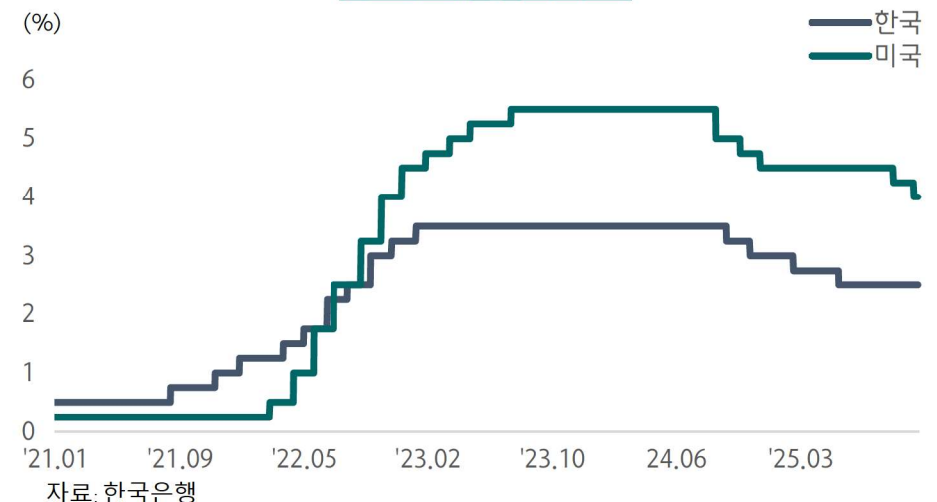
기관	전망치	기관	전망치
KDI	1.6%	씨티	2.2%
한국은행	1.8%	골드만삭스	2.2%
IMF	1.8%	JP모건	2.2%
OECD	2.2%	노무라	1.9%
현대경제연구원	1.9%	UBS	1.8%

- 한은 금융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운용, 26년 1회 인하 예상
 - 10월 금통위 금리동결, 금융안정 중시 기조 강조 및 3개월 내 인하 주장 위원 수 감소(5명 → 4명)
 - '25년 10월 한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대비 2.4%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된 모습
 -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통상 리스크 완화, 연준의 금리인하 지연 전망 → 한은의 금리인하 속도 ↓ 가능성
- 한-미 금리차 150bp로 축소되었음에도 대외 불확실성과 외환수급 여건 악화에 원화 저평가 국면 해소 x
 - 연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미 증시 AI 및 반도체 주 강세로 인한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 증가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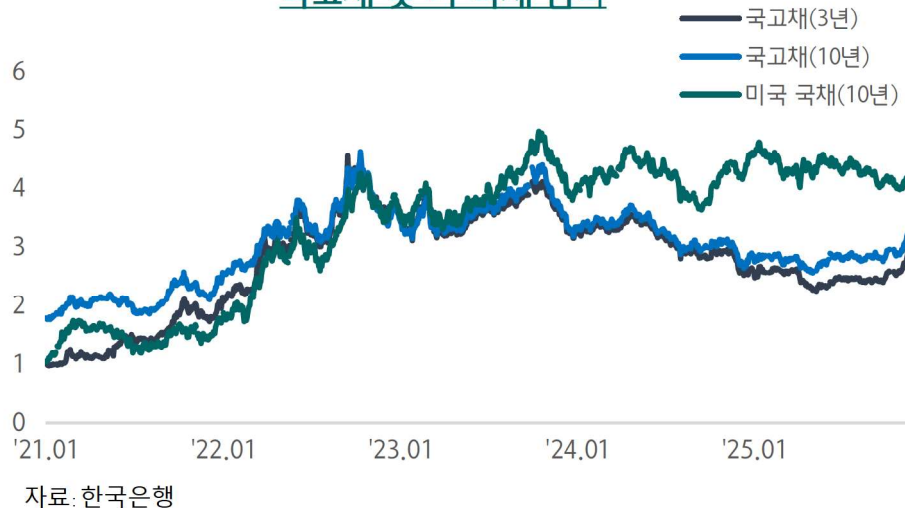
한국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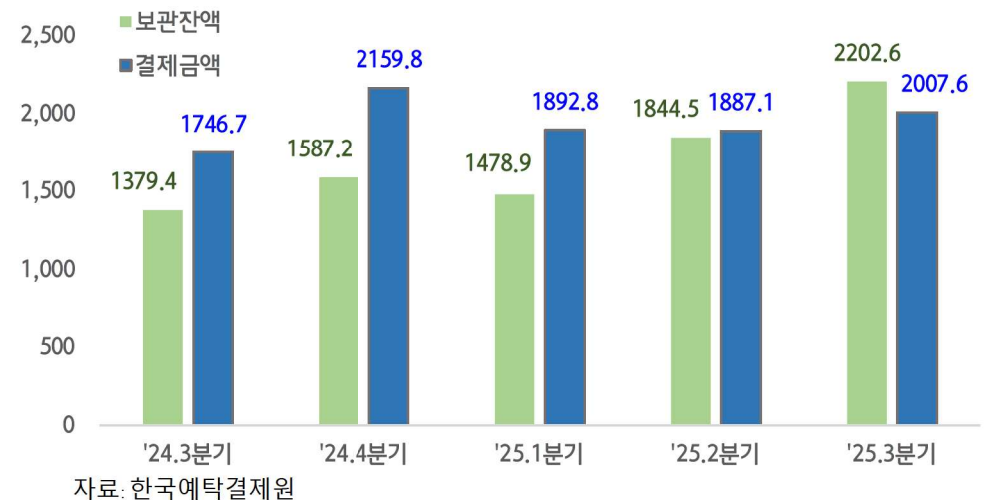
한-미 기준금리 추이



국고채 및 미 국채 금리



내국인의 해외주식 투자 규모(단위, 억달러)





	원화 강세 요인	원화 약세 요인
Watching Point	- 하반기, 국내 성장 모멘텀 강화 가능성 - 외환시장 구조 개선 효과 및 WGBI 편입	- 미-중간 빈번한 관세 유예 정책 속에서도 갈등 첨예화 지속 - 연준 의장 교체 이후로도 꺾이지 않는 물가 상승세에 신중한 정책 모드
종합평가	▪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가 원화 환율 방향성에 지속적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6년 관세 영향으로 보다 신중할 전망 ▪ 미국과 중국 관세 합의는 트럼프 임기내 타결 가능성 낮아 보이며 유예와 갈등 첨예화 번갈아가는 상황 속 시장 영향 지속될 전망 ▪ 하반기로가며 원화 경제의 모멘텀 강화되겠지만, 상대적인 미국 성장률의 격차 속 달러 강세 영향 우위 점할 전망 ▪ '25년도에 이은 국내투자자의 해외 투자 확대 지속 등이 경상 흑자 및 외국인 자본 유입에도 환율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2026년 KRW 전망

	1Q	2Q	3Q	4Q	평균
2023년	1,277	1,315	1,311	1,310	1,300
2024년	1,329	1,371	1,358	1,358	1,399
2025년	1,452	1,410	1,400	1,440	1,420
2026년	1,410	1,430	1,410	1,380	1,400

자료: 하나은행
주: 검은색은 실현치, 파란색은 추정치

주요기관 2026년 KRW 전망

	1Q	2Q	3Q	4Q	평균
해외 IB	1,390	1,380	1,370	-	1,343
A	1,420	1,400	1,390	1,370	1,390
B	1,410	1,380	1,400	1,370	1,385
C	1,370	1,380	1,400	1,410	1,390

자료: Bloomberg, 주요 기관 전망치 집계